“불교명상입문서, 외국 의존도 높다”

문진건 교수, 한국불교사硏 집중세미나서 지적

10년간 불교명상 입문서 살펴
108종 발간… 외국 저자 42%
‘불교명상’ 연구 인프라 부재해
학제 간 융합 연구 등 이뤄져야
철학 · 사학 · 예술 입문서 분석도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지난 2008년부터 현재까지 불교명상 입문서는 총 108종이 발간됐으며, 이중 42%가 외국 저자의 번역물인 것으로 조사됐다.

문진건 동방문화대학원대 불교문예학과 교수는 11월 16일 동국대 다향관 세미나실에서 ‘불교입문서 간행의 현황과 분석 그리고 대안’ 이라는 주제로 열린 제25회 집중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불교명상 입문서 간행의 현황과 분석’ 을 발표한 문 교수는 국내에서 ‘명상(meditation)’ 이라는 용어를 언제부터 사용했는지를 먼저 살폈다.

문 교수에 따르면 문헌상 명상이라는 용어가 나타난 것은 1930년대 국내에 출간된 일본어 서적에서였다. 1950~60년대에도 명상이라는 말이 확인되지만 수행보다는 사색에 가까운 의미였다. 한국불교계는 1980년대가 돼야 ‘명상’ 이라는 용어를 수행법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하지만 그 빈도는 적었다. ‘명상’ 이 불교 전반에 걸친 수행법을 대표하는 용어로 사용된 것은 2000년대 이후다.

이에 문 교수는 “불교의 수행법에 명상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지 않았다가 서양 불교 연구와 심리치료의 명상프로그램 도입이 증가하면서 국내 불교학계가 서양의 방식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아직 ‘불교명상’ 에 대한 명확한 입문 교과서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밝힌 문 교수는 초보자를 위한 참고서적을 입문서로 간주하고 현황을 조사했다. 그는 국립중앙도서관과 교보문고 웹사이트를 통해 자료를 수집했다. 기간은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약 10년 간이다.

이를 통해 집계된 불교명상 입문서는 총 108권이었다. 기간별로는 2008년 5권에 불과했던 불교명상 입문서 종수는 2012 · 2013년 각각 18종으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감소 추세로 접어들며 2017년에는 3권의 발간 종수를 보여준다. 하지만 2018년에는 다시 12권으로 종수가 증가해 회복세를 보였다.

문 교수는 “2012년 종수의 증가를 보인 명상 분야는 초기불교였고, 2013년에는 명상 일반이었다”면서 “이는 위빠사나와 사마타와 같은 초기불교 명상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구글 트렌드 분석에 따른 2000년대 중반까지는 간화선 검색 빈도가 높았으나 2005년부터는 위빠사나와 사마타 검색이 급증했다. 2011년 힐링 열풍이 불면서 ‘불교수행법’ 검색보다 ‘명상’ 검색 빈도가 높아졌다”면서 “2012, 2013년 초기불교 명상에 대한 입문서 종수의 급격한 증가는 일반 대중의 ‘명상’ 에 대한 관심 증가와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저자 분석을 통한 문제점도 제기했다. 문 교수에 따르면 108권의 불교명상 입문서 중 외국인 저자는 총 45인으로 전체 42%에 달한다. 내국인 저자 62인 중 34인이 승려로 내국인 저자 중 55%를 차지했다. 재가 저자 28인 중 전공자는 6인이었고, 비전공자는 16인이었다.

이에 대해 문 교수는 “지난 10년간 발간된 불교명상 입문서의 42%가 외국 번역물이었던 것을 보면 국내 불교학자들의 불교명상에 대한 관심은 낮은 편이며 연구도 부족하다”면서 “불교명상이 국내에서 학문으로 확립되기 위해서는 불교명상에 대한 전문성이 강화돼야 하는데 국내에는 이를 통합적으로 연구하는 학자가 드물다”고 지적했다.

이어 “명상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불교명상의 관심은 멀어지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불교명상에 대한 관심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라도 국내 불교학계는 학제 간 융합연구와 같은 적극적 연구 인프라 구축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날 세미나에서는 △불교사학 입문서 간행의 현황과 분석(이성운, 동방문화대학원대) △불교철학 입문서 간행의 현황과 분석(고영섭, 동국대) △불교예술 입문서 간행의 현황과 분석(백도수, 능인불교대학원대)이 발표됐다.

논평자로는 이자랑(동국대 불교학술원), 김종인(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박영란(동국대), 신광희(한국예술종합학교) 박사가 참여했다.

대행선연구원 제6회 계절발표회

12월 14일 안양본원서… ‘대행 선사와 앎’ 주제로

‘한마음 주인공 관법’ 이라는 생활선 수행으로 중생 교화에 힘쓴 묘공당 대행 선사(1927~2012)의 앎에 대한 인식을 살피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마음선원 부설 대행선연구원(원장 권탄준)은 12월 14일 오후 1시30분부터 안양본원 3층에서 제6회 계절발표회를 개최한다.

이번 발표회에서는 대행선 관련 연구논문 1편과 불교학 연구 논문 1편이 각각 발표된다. 대행선 관련 연구로는 김영래 고려대 교수가 ‘대행선사에 있어서 지식(앎)의 문제 : 한마음인식론 시론’ 을 발표한다.

불교학 부문에서는 공만식 동국대 교수가 ‘아귀도의 음식적 규정성과 여성의 관계에 대한 고찰’ 을 발표할 예정이다.

논평자로는 박기열(동국대), 이상호(대행선연구원), 심준보(금강대), 이석환(대행선연구원)이 참여한다.

대행선연구원은 “대행 선사의 선사상과 교화행을 연구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매년 학술대회와 4번의 계절발표회를 개최하고 있다”면서 “선학, 불교학 관련 중견학자들을 초청해 발표하는 이번 계절발표회에 불자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탄허학 정립 위한 논의 이뤄진다

한국불교학회 11월 29일 추계학술대회

한암 · 탄허 스님의 유지를 계승하고 탄허학 정립을 위한 학술대회가 열린다. 한국불교학회(회장 김성철)는 탄허불교문화재단과 금강선원 , 한암문도회 및 조계종 제4교구본사 월정사와 공동으로 11월 29일 오후 1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탄허학 정립을 위한 외연의 확장’ 을 주제로 추계특별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화엄학과 정역학의 비교종교학적 고찰- 한국학의 새 지평과 탄허학의 확충(문광 스님, 동국대) △청대의 학문 특징과 탄허의 원융론적 가치(자현, 중앙승가대) △탄허 스님의 유가적 경세사상(이원석, 동국대) △탄허 노장학 천의(서대원, 충북대) △탄허택성의 선 이해 관점 - 삼분법 사유 틀의 시사점과 한계(조영미, 동국대) 등이 발표된다.

세미나에 앞서는 제1회 한암 · 탄허 학술상 시상식도 열릴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법련사와 월인석보 상관관계 살핀다

오는 12월 1일 법련사서

승보종찰 송광사 서울분원 법련사(주지 진경)가 법련사와 〈월인석보〉 관계를 조명하는 특강이 열린다.

법련사는 12월 1일 오전 11시 30분 대웅보전에서 ‘법련사와 월인석보’ 주제로 일요법회 불일인문학 특강을 연다.

강사로는 정진원 동국대 연구교수가 나선다.

법련사 신도인 정진원 교수는 특강에서 경복궁 내불당 역할을 하고 있는 법련사 위치와 창건 공덕주 법련화 보살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조선시대 대장경의 시작 〈월인석보〉에 대한 강의도 진행된다.

특강은 정진원 교수가 2017년 4월부터 현재까지 ‘월인석보’ 인문학 강좌와 사보 ‘법련’ 지에 연재한 내용을 간행한 〈월인석보, 훈민정음에 날개를 달다〉의 고불식을 겸하는 자리다. (02)733-5322

신성민 기자

신규 지정 국보 · 보물 100점 전시된다

문화재청 · 국박, 19일 MOU
3년간 지정 국보 · 보물 대상
내년 4월 특별전 개최 계획

새롭게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재 국보와 보물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과 국립중앙박물관(관장 배기동)은 11월 19일 문화유산 조사 · 연구 · 전시 등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협약을 체결했다.

문화재청과 국립중앙박물관은 상호협약을 통해 △문화재의 조사 · 연구 · 보존 · 관리 등 정보 공유 △국가지정문화재의 공동 전시 △소장유물의 열람 · 대여 · 전시 활용 △문화재의 사회 가치 확산 등에 대한 협력 등이다.

두 기관은 첫 번째 협력 사업으로 내년 특별전 ‘신규 지정 국보 · 보물’ (가제)을 공동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새롭게 국보로 승격되거나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를 전시하는 이번 특별전은 약 40여 개 기관과 사찰, 개인이 소장한 국보 · 보물 100여 건 등 사상 최대 수량의 국가지정문화재가 한자리에서 공개된다.



배기동 국립중앙박물관장(사진 왼쪽)과 정재숙 문화재청장(사진 오른쪽)이 11월 19상호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번 특별전에 전시되는 국가지정문화재는 국보 제151호 조선왕조실록, 제325호 기사계첩, 제327호 부여 왕흥사지 출토 사리기, 보물 제1973호 신윤복 필 미인도, 보물 제2000호 김홍도 필 삼공불환도 등 우리나라의 대표 명품 문화재다.

특히, 그동안 국민이 쉽게 접하기 어려웠던 개인 또는 사찰이 소장한 국가지정문화재도 다수 공개될 예정이다. 3년간 신규 지정된 보물 제2007호 상주 남장사 영산회 괘불도 등 대형 불화와 국보 제323호 논산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 보물 제1942호 화성 용주사 대웅보전 등 건조물 문화재도 영상으로 소개할 계획이다.

문화재청은 “이번 특별전은 우리 문화재의 우수성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장 유물의 열람과 정보 공유, 장기대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꾸준히 협조해 누구나 우리 문화재를 접할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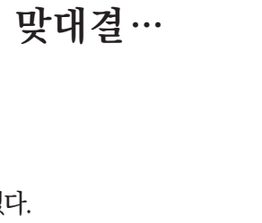
성보博 기틀 만든 범하 스님 그리다

불교미술사학회, 〈불교미술사학〉 추모논총으로 발간

한국불교 성보박물관의 기틀을 만든 범하 스님을 추모하기 위한 논총이 발간됐다.

불교미술사학회(학회장 송천)는 “학회의 전문 학술논문집 〈불교미술사학〉 제28집을 통도사성보박물관 신축 개관 20주년을 맞아 초대 박물관장과 불교미술사학회장을 역임한 범하 스님을 추모하는 논문집으로 발간했다”고 11월 19일 밝혔다.

국내 최고 불교문화재 전문가로 통했던 범하 스님은 1961년 통도사에서 법인 스님을 은사로 출가하며 사문의 길을 걸었다. 1987년부터 2013년까지 통도사성보박물관장을 지내면서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 초대 관장과 성보문화재연구원 이사장, 문화재청 동산분과 문화재위원을 역임하는 등 불교문화재 전문가이자 학승으로서의 면모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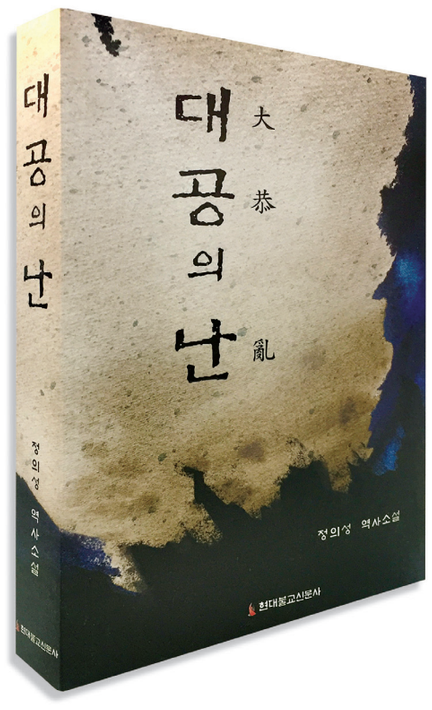
추모논총인 〈불교미술사학〉 제28집은 평소 스님과 깊은 인연을 맺고 있던 김종규(한국박물관협회 명예회장) 등 3인의 추도사와 건축 5편, 조각 7편, 회화 · 사경 11편, 공예 4편, 불교민속 1편, 기획논문 2편 등 각계 전문가들의 학술논고 총 30편이 실려 있어 향후 불교미술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신성민 기자

“운명의 화살은 일직선으로 날아가는 법이 없더라”

불법이 꽃을 피웠던 통일신라,
그러나 어둠이 짙으면 새벽이 더욱 밝게 열리듯이
법멸의 월식 기간이 있었으니,
그 시대를 건너야 했던 왕과 여왕,
화랑과 고승들, 그리고 천하제일을 다투는 검객들의
사랑과 운명이 밤하늘과 별처럼
오늘 우리의 가슴을 적신다.

작가 정의성 (鄭義成)

신라의 김대성 공은 전생의 부모를 위해
석불사를 지었고 현생의 부모를 위해 불국사를 지었습니다.
그 멋들어진 효성이 천이백 년이 훌쩍 지난 지금에도 남아있습니다.
저도 작게나마 부처님께 이 책을 지어 바쳐
부모님의 행복을 빌고자 합니다.



대공의 난
정의성 역사소설 | 신국판 | 704쪽 | 값 22,000원
현대불교신문사

현실을 꿈처럼 재해석하게 하는 불교적 환타지,
무협소설 같은 속도와 긴장,
삼국지를 연상시키는 지혜와 술수의 맞대결…

이 소설은 통일신라시대 중기에 일어난 대공의 난을 다루고 있다.
모름지기 소설은 첫째, 재미가 있어야 하는데 작가 정의성의 〈대공의 난〉은 그 첫째를 충족시키고도 남음이 있다. 암흑의 시기를 통과하는 청춘 남녀들의 사랑과 비극이 폭염 속의 단비 같고, 장마 속의 햇살 같은 신들린 작가의 손에 의해 반전에 반정을 거듭하며 절묘하게 펼쳐진다.
〈삼국사기〉,〈삼국유사〉가 갖는 비통일적인 특성들이 작가의 상상력에 의해 결합, 재창조되어 역사 속의 인물들을 더욱 생생하게 눈 앞에 되살려냄으로써 특별한 재미와 함께 인생사의 오묘한 이치를 사유하게 된다.
역사에 대한 깊은 연구와 방대한 자료조사, 검술과 진법에 대한 작가의 해박한 지식과 갈고 닦은 내공이 작품 속에 녹아 있어 삼국지를 연상시키는 박진감을 선사하면서, 영화나 드라마처럼 생생하게 펼쳐진다.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구입처 : 현대불교 현불샵 ☎ 02)2004-8216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대표이사 서성우